

2013년 5월 12일 일요일

날씨 ☀

오늘은 친구들을 만나서 카페에 앉아있다가
 저녁으로 전에 말하던 가게에 가서 과자를 먹었다.
 과자를 세명이나 가서 두 과를 먹고 냉면을 먹고
 나와 상동역으로 가서 어제 현주와 싸워서
 시아가 좋지는 않았는데 과자를 풀리고 현주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현주가 엄청 많이 웃었다.
 거기서 진심이 느껴졌다. 그래서 화해를 하였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아직도 초등학생같이 유치하다
 하지만 한번 싸우고 보면 시아가 더 돈독해지고
 친구의 소중함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다.
 보람찬 하루였다. 오늘이 잊게 끄

